

비판적 담화 분석에 기초한 이주노동자의 표상에 관한 연구: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를 중심으로

이정화*

요약

본 연구는 매체의 틀 짓기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내레이터의 발화를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들의 발화에서 과어휘화(overlexicalization) 전략을 통해 생성된 담론을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 과어휘화된 텍스트들은 이주노동자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담론으로 집약되었다. 이주노동자의 발화에는 힘든 업무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각종 지원을 받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었다. 한편 내레이터의 발화에서 과어휘화된 텍스트들은 이주노동자를 하층 일꾼이자 성공적으로 적응한 타자로 규정하는 담론으로 집약되었다. 내레이터의 발화에는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 강조된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한베실무통번역전공 강사, leejh95105@naver.com

가 소략하게 다루어진 대신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이주노동자를 부정적 틀 안에서 사회적 약자이자 타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이주노동자, 비판적 담화 분석, 과어휘화, 매체, 틀 짓기

I. 서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2020년 말 기준으로 2,036,075명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7.2% 증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이주노동자¹⁾가 재외동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의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출신이며 어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으로 분류된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청년들의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1)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노동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주는 배타적 어감으로 인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바(이주희 외 2021), 본 연구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서 국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국내 중소기업 관리자의 발언은 이들의 근무 환경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냄새 나고, 덥고, 시끄럽고, 밤에도 일해야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요즘은 다 대학 나오고 그러는데. 사무직 1명 뽑으면 30명 오고, 현장직 30명 뽑으면 3명 옵니다. 어차피 현장 일이야 배우면 다 할 수 있으니 외국인이라고 못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니면 단가 맞추기도 힘들겁니다(김민욱 2014, 158).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각종 매체에서 제대로 조명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채영길(2010)은 이주민에 대한 매체의 재현이 인종주의, 온정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가족주의, 남성주의 등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기형 외(2014)는 다문화 주체들에 대한 매체의 재현이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과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난점과 한계를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상술한 연구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매체의 재현 역시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반 다이크(Van Dijk 1993)는 외부 세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이나 관점이 일상성을 가진 매체로부터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반 대중은 이주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매체에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매체에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약자, 타자, 갈등의 원천 등으로 보는 부정적 틀 짓기가 이루어진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점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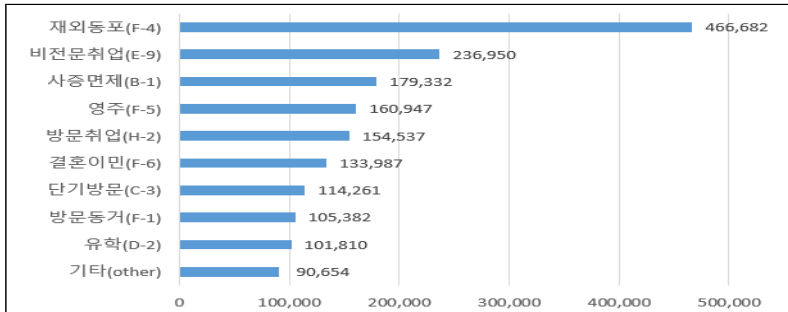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중적 영향력이 큰 TV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표상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외국인을 전면에 내세운 TV 프로그램은 KBS의 <러브 인 아시아>, <미녀들의 수다>, <이웃집 찰스>, MBC every1의 <대한외국인>,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JTBC의 <비정상회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TVN의 <서울메이트>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이주노동자를 조명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EBS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내레이터의 발화를 비판적 담화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이주노동자의 현황 및 연구 경향

1. 이주노동자의 현황

국내의 이주노동자는 크게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기능인력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포함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상위 10개만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재외동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의 노동력은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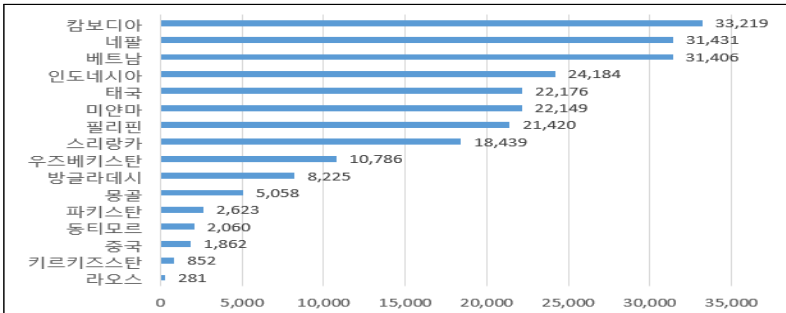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를 토대로 필자 작성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출신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노동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0년대부터 활용되어 온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²⁾를 전환한 것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전용일 외 2019). 한국 정부와 근로자 송출 양해 각서를 체결한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그림 2>에 제시된 16개국이며 그중에서도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는 국내의 이주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에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연수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 이주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연장 야간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 산재 보장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연수생들이 많아졌으며 이를 악용한 고용주의 인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였다(이유인 2018; 강병석 2019; 지승우 외 2021).

〈그림 2〉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 국적별 현황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를 토대로 필자 작성

〈표 1〉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 종사 가능 업종

업종	적용 범위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제조업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출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을 토대로 필자 작성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표 1>과 같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고 국내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2년 미만으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최초 입국 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을 위한 출국 기간을 3개월 거친 뒤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어 최장 9년 8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기 순환의 원칙에 따라 정주의 권리

를 보장받지 못하고 가족 초청과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장 이동에도 제한을 받는다(박진우 2014; 최진훈 2019).

2. 매체 담화 속의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일반 대중은 매체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신문, 방송에서 보도되는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나 영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이근옥 외 2019). 그러나 매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표현’을 통해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현실의 재구성 창구의 역할을 하므로(서경희 외 2019) 매체에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모습은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매체의 재현은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했으며 소재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을 다룬 뉴스가 비극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고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한 어두운 분위기가 뉴스 보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매체에서 부정적 틀 짓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경희 2009; 이창호 외 2010; 이기형 외 2014).

이주노동자에 관한 신문 기사가 이들을 관용과 온정의 대상인 피해자, 사회통합의 대상인 약자, 후진국 출신의 외국인으로 바라보게 하는 편향된 틀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신유리 2013; 서경희 외 2019). 즉, 매체는 현실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작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담화를 형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권금상 2013).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한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매체는 TV, 인터넷 포털, 신문, 라디오, 인터넷 뉴스 사이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SNS, 잡지 순인 것으로 나타나 여러 매체 가운데 TV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된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이주노동자가 재현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전문인력, 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현된 비율이 각각 46.4%, 18.8%, 17.1%, 14.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TV 매체의 관심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김초희 외 2018). 실제로 현재 이주노동자를 조명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은 EBS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가 유일하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로 꼽히는 결혼이민자를 다룬 TV 프로그램과 그것을 분석한 연구(장민정 2014; 기준성 외 2019; 박효정 2020 등)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조명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의 장르가 다큐멘터리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다. 현실감 넘치는 화면, 현장음, 실제 인물과의 인터뷰는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속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사실적 소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객관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로써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보다 깊이 스며들어 각인되며 수용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순수하게 반영하여 재현한 것이 아니라 제작진의 기획 의도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며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내레이터의 서사적 권위 또한 사회적 담화를 믿음직스럽고 견고하게 재생산한다(장혜경 외 2011). 이처럼 다큐멘터리는 시청자가 해석할 수 있는 다의적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표 2〉 TV 다큐멘터리에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대표성

배경 지표		통합 지표	
출신국	네팔, 캄보디아, 태국	기능 수준	숙련된 기술자
연령	36.5세	평균 소득	167만 원
입국 이유	생계	숙식 형태	기숙사 거주
체류 기간	4년 5개월	건강 상태	건강한 편임
종사 업종	공업	여가 활동	활동함
근무지	경기도	커뮤니티 활동	활동함
가족 형태	대가족	한국인과의 교류	공장 내 한국인
자녀 수	2명	차별 경험	없음
자녀 연령	8~9세	정주 의사	없음

출처: 김경림(2018)을 토대로 필자 작성

TV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경림(2018), 이근옥 외(2019)가 있다. 먼저 김경림(2018)은 통합의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하여 이주노동자가 사회통합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고자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을 배경 지표와 통합 지표의 측면에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대표성을 추출하였다. <표 2>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재현된 이주노동자는 아시아 저소득 국가에서 온 36.5세의 남성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이다. 이 사람은 건강하고 여가를 즐기며 한국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낸다. 한국에서 차별을 받은 적도 없고 한국 사회에 대해 불평도 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온순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고 있다. 김경림(2018)은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이처럼 이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차별적 배

제주의³⁾가 지속되는 한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근옥 외(2019)는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담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가족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한 아빠, 본국의 생경한 문화적 불거리로 대상화된 엄마,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정된 아이들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아빠로서의 이주노동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직한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었고 직장인으로서의 이주노동자는 사장님이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직원으로 재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진짜 목소리 대신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미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연구는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경림(2018)이 이주노동자의 대표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배경 지표와 통합 지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적으로 수집하여 수치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근옥 외(2019)는 서사구조 분석틀에 의거하여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 주는 이야기(story)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밝혀 주는 담화(discourse)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또한 동일한 TV 다큐멘터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3) 각국의 이주민 수용 방식은 크게 차별적 배제 모형,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차별적 배제 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이주민을 3D 업종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서만 받아들이고 복지, 시민권, 선거권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치 않는 이주민의 정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한국, 일본, 독일 등 단일 민족을 강조해 온 국가들이 주로 이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이주 집단에 따라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김혜련 2014).

본 연구에서는 담화가 언어로 구성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매체 담화의 분석을 언어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서경희 외(2019)의 관점을 수용하여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내레이터의 발화를 텍스트화하고 이를 비판적 담화 분석에 기초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EBS 1TV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15분에 방송되고 있는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TV 프로그램으로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삶,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가족의 생활상, 그리고 이들이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상봉하게 되는 과정을 한 편 또는 두 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86%가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술한 8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다룬 에피소드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방송된 에피소드 14편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에피소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4) 이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2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신규 제작된 에피소드를 방송하였으나 2019년 7월 29일부터는 기존의 에피소드를 재방송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https://home.ebs.co.kr/finddad>)에서 2015년 9월 2일부터 2020년 3월 24일까지 방송된 모든 에피소드를 시청할 수 있다.

〈표 3〉 분석 대상 에피소드

주인공/국적	근무지/업종	에피소드 제목	방영일 ⁵⁾
석잔느 캄보디아	경북 영덕군 어업	8년간 뱃멀미하는 어부 아빠의 소원	2020/02/25
		아빠가 소지따의 두 발이 되어 줄게	2020/03/03
사흐 네팔	경남 김해시 제조업	7식구의 가장, 아빠의 무거운 어깨	2020/02/11
		4년 만의 재회, 아빠의 특별한 수업	2020/02/18
한 베트남	경남 김해시 제조업	밍퓌크의 히어로 VS 사장님의 오른팔	2019/09/24
		깜찍 남매를 찾아온 슈퍼히어로	2019/10/01
가르노 인도네시아	경기 안산시 제조업	엄마 아빠의 빈자리, 인도네시아 자매의 걱정	2019/06/17
나티 태국	충남 세종시 제조업	도시 농부를 꿈꾸는 아빠	2020/03/17
		한국을 사로잡은 매력 만점 태국 부자	2020/03/24
흐라모 미얀마	제주 제주시 농업	떼쟁이 동생과 듄직한 형, 그리운 아빠 품으로	2018/06/05
레이날도 필리핀	경기 화성시 제조업	내 사랑 차이차이	2019/12/03
		꽃길만 달려요	2019/12/10
차릿 스리랑카	경기 김포시 제조업	가족은 나의 힘	2020/01/28
		꿈만 같은 가족 만남	2020/02/04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각 에피소드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이들을 관찰하는 내레이터의 발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주노동자의 발화는 제작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내레이터의 발화는 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들의 발화는 모두 제작진의 의도가 반영된 일종의 유도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어떠한 틀 짓기가 이루어지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각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이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내레이터의 발화를 전사하여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보여주는 데에도 상당한 방송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표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의 가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주노동자가 가족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 이주노동자가 가족에 대해 제작진과 인터뷰한 내용, 이주노동자의 가족이 제작진과 인터뷰한 내용, 내레이터가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관찰하며 언급한 내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거쳐 분석 대상 에피소드 14편에서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내레이터의 발화를 문장 단위로 추출한 결과, <표 4>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발화는 225개, 내레이터의 발화는 371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 분석 대상 텍스트

인물 유형	발화 문장
이주노동자	225개
내레이터	371개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표상을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판적 담화 분석은 불평등, 지배, 억압 등의 사회적 문제가 텍스트나 담화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고 담화 생산자는 이 담화 자료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김해연 2016, 312). 1900년대 초부터 반 다

이크(Van Dijk 1985), 페어클로(Fairclough 1989), 워닥(Wodak 1996)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비판적 담화 분석은 언어가 사회에서 각종 차별을 유지하거나 정당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는 유럽 지역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 은연중에 드러나는 인종 차별, 소수자들이 겪는 불평등, 남성 우월주의 등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서경희 외 2020). 이러한 배경에서 비판적 담화 분석은 신문 보도, 정치적 담화, 인터뷰와 같이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료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서경희 외 2019).

〈표 5〉 비판적 담화 분석의 3단계

구분	단계	내용
텍스트 차원	기술	해당 텍스트에 작동하고 있는 언어학적 속성들을 기술하는 단계
담화적 차원	해석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수행 과정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단계
사회문화적 차원	설명	텍스트의 산출 및 해석 과정에 작용하는 사회적 결정 내용 및 그것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

출처: 김윤선(2014, 26)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은 <표 5>와 같이 텍스트 차원의 ‘기술(description)’, 담화적 차원의 ‘해석(interpretation)’, 사회문화적 차원의 ‘설명(explanation)’이라는 삼중 분석틀을 따른다(최윤선 2014, 25). 먼저 텍스트 차원에서는 분석 대상 텍스트에 특정 어휘나 구문이 사용되었는지, 그 어휘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거나 암시하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텍스트의 언어학적 구성과 특징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담화적 차원에서는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이 서로 응집하여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지, 어떤 담화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배포, 수용되는 과정을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담화가 사회 구조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역으로 그렇게 결정된 담화가 사회적으로 누적되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생산, 재생산하는지 설명한다(오수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정 담론이 생성되는 과정을 텍스트 및 담화적 차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차원에서는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관찰하는 내레이터가 각각 어떤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어휘의 결합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담화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이 응집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 어휘가 상징하는 영역으로 담론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이러한 어휘의 빈도를 분석하고 어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담론 생산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박성희 2009; 박수정 2011).

실제로 뉴스 담화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을 묘사할 때 어휘를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유사한 동의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특정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과어휘화(overlexicalization) 전략이 자주 활용된다(Teo 2000). 신유리(2013)는 ‘중국 노동자’, ‘중국인 이주노동자’, ‘중국인 노동자 리웨이 씨’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사용한 이주민 관련 신문 기사를 예로 들어 이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이 우리와는 다른 ‘외국 출신의 노동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표상은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러한 어휘들이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를 특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담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이주노동자의 발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의 에피소드 14편에서 이주노동자가 발화한 문장은 총 225개이다. 이를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범주화하면 크게 근무 현장을 배경으로 한 근무 관련 발화,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한 생활 관련 발화,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주제로 한 가족 관련 발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발화는 62개, 72개, 91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가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근무 및 생활 관련 발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근무 관련 이주노동자의 발화

이주노동자가 근무와 관련하여 발화한 내용은 업무, 건강, 동료로 주제로 한 발화로 세분화되며 각 발화는 전체의 60%, 24%,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근무와 관련된 이주노동자의 발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업무를 주제로 한 발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어휘는 ‘일하다’로 대표되는 작업 관련 어휘와 ‘힘들다’였다. 이들은 판넬 공장, 파이프 공장, 식료품 공장, 선박 에어컨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당근 농장,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하다’, ‘용접하다’, ‘포장하다’, ‘고기를 잡다’, ‘파이프를 자르다’ 등의 작업 관련 어휘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청소하다’, ‘정리하다’, ‘재활용하다’와 같이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에 해당하는 어휘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근무 관련 이주노동자의 발화

주제	어휘	문장
업무 (60%)	일하다	배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물건들 다 정리해야 돼요. 지금 크롬 도금하고 있어요. 여기 용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오늘은 오징어와 잡어들을 잡아요. 이 스티로폼 더미는 재활용할 거예요. 저쪽에서 다 만들어진 춘장이 나오면 여기서 포장을 해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잘라서 급수 배관 이음쇠를 만들어요.
	힘들다	일은 힘들지만 참고 해야 해요. 뱃멀미를 심하게 해서 고기 잡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밀에서부터 들어 올려야 해서 두 명에서 해도 힘들어요. 일이 되게 힘들었는데 맛있는 것을 먹으니깐 기분이 좋아요.
건강 (24%)	아프다	많이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요. 아플 때마다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져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깨가 많이 아파요.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직접 파스를 붙여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져 이렇게 됐어요. 오래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열고 팔이 아파요. 한 자리에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목도 많이 아파요. 팔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두 달 쉬라고 하는데 그냥 약을 먹고 일해요.
동료 (16%)	도와주다	사장님이 너무 잘해 주세요. 선장님이 집에서 먹는 것도 잘 챙겨 줘요. 6개월 전에 사모님이 가불을 해 주셨어요. 동료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장님한테 비자 연장해서 더 남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공장 생활 처음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음식 대접을 한번 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또한 이주노동자는 업무 강도가 높아 ‘힘들다’는 점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강 문제가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건강을 주제로 한 발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아프다’였다. 이들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때문에 목, 팔, 어깨, 허리, 다리 등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나 대부분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고 있었다. 근무 중 팔을 다친 한 이주노동자는 두 달 동안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서 계속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도 한국인 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동료를 주제로 한 발화에는 ‘선장님’, ‘사장님’, ‘사모님’ 등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으며 ‘도와주다’로 대표되는 어휘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 관리자는 이주노동자에게 먹을거리를 챙겨 주는 일상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처리해 주거나 가족의 수술비로 쓸 수 있도록 월급을 가불해 주는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재현되어 있었다.

2) 생활 관련 이주노동자의 발화

이주노동자가 생활과 관련하여 발화한 내용은 경제적 상황, 한국 문화, 친구를 주제로 한 발화로 세분화되며 각 발화는 전체의 52%, 36%,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생활과 관련된 이주노동자의 발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경제적 상황을 주제로 한 발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어휘는 ‘돈을 벌다’, ‘돈이 없다’, ‘돈을 보내다’였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돈을 벌어서 본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한국에서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에피소드에는 이주노동자가 시장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장면이 빠짐없이 나왔는데 이 장면에서 이들은 항상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으며 시장 상인에게 저렴한 것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물건값을 깎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은 왜 사지 않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모든 이주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돈이 없으니 다음에 사겠다고 대답했다.

<표 7> 생활 관련 이주노동자의 발화

주제	어휘	문장
경제 상황 (52%)	돈을 벌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빨리 돈 벌어서 아내랑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돈 벌어서 집도 짓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면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무릎이 안 좋은 아버지에게 약도 사 드릴 수 있어요.
	돈이 없다	돈 없어서 나중에 사려고요. 가방은 좋은데 너무 비싸요. 사장님, 저렴한 가방 있어요? 제 신발은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살 거예요.
	돈을 보내다	돈 보내면 가족이 좋아해요. 저는 10만 원 써요. 월급 나머지는 가족에게 보내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어서 은행에 올 때가 가장 행복해요. 큰아이는 학교도 보내야 해서 가족에게 돈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한국 문화 (36%)	좋아하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아요. 오늘 김밥 있어요. 김밥 좋아요.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어조림이에요. 아침에 김치, 점심에 김치, 저녁에 김치, 맛있어요.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태권도장을 만들고 싶어요. 장나라는 예쁘고 노래도 잘해서 베트남에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친구 (12%)	함께하다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고 도움도 돼요. 같은 베트남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서로 잘 이해해 줘서 좋아요. 마라톤 끝나면 메달을 받긴 하지만 친구들과 달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 풀려서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이 프로그램에서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을 담은 장면은 한국 문화 속에 편입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주노동자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자가 후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발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좋아하다’였다. 이주노동자는 특히 ‘좋다’, ‘맛있다’, ‘입에 맞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를 적극적으로 드러

냈으며 여가 시간에 한국 가수의 영상을 찾아보거나 태권도를 배우러 다닌다는 답변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표현했다.

같은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무지 주변에 위치한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은 근무 시간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주노동자의 발화에는 친구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했으며 친구를 주제로 한 발화에는 ‘함께하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본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취미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본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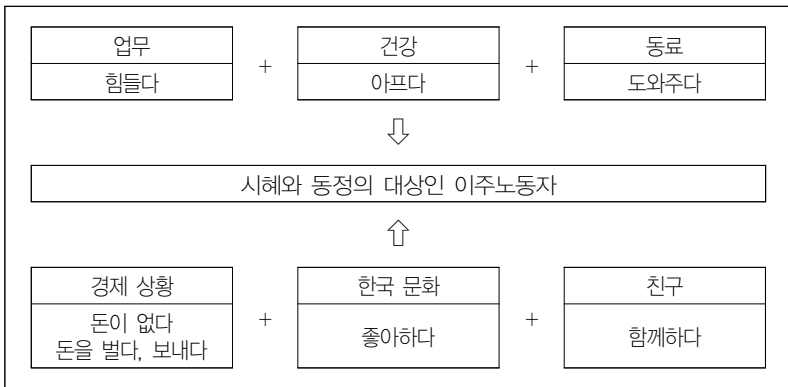
3)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 생성된 담론

이주노동자가 근무 및 생활과 관련하여 발화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각 주제에서 과어휘화된 텍스트들은 <그림 3>과 같이 이주노동자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담론으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속의 이주노동자는 근무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했으나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로부터 받고 있는 따뜻한 보살핌과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으며 이에 보답하고자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등 한국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는 시혜를 베푸는 대상과 시혜를 받는 대상을 각각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로 구분 짓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편 이주노동자가 근무 중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주저앉거나 근무가 끝난 후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약을 챙겨 먹는 모습이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는 모습만큼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속의 이주노동자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노동자의 발화 전체를 통틀어 가

장 많이 언급된 주제가 경제적 상황이라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돈이 부족해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모습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는 여러 에피소드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들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림 3〉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 생성된 담론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2. 내레이터의 발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의 에피소드 14편에서 내레이터가 발화한 문장은 총 371개이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발화 유형과 동일하게 근무 관련 발화 139개, 생활 관련 발화 147개, 가족 관련 발화 85개로 구분된다.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내레이터의 발화에서는 근무 및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약 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 근무 관련 내레이터의 발화

내레이터가 이주노동자의 근무와 관련하여 발화한 내용은 업무, 평가, 동료, 건강을 주제로 한 발화로 세분화되며 각 발화는 전체의 55%, 25%, 15%,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 업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건강 문제가 여기에서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평가가 업무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내레이터의 발화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은 이주노동자의 근무와 관련된 내레이터의 발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내레이터가 이주노동자의 업무를 주제로 한 발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어휘는 ‘일하다’, ‘힘들다’, ‘버티다’, ‘실수하다’였다. ‘일하다’로 대표되는 작업 관련 어휘로는 ‘변색을 하다’, ‘피막을 입히다’, ‘불량을 찾아내다’ 등이 쓰여 이주노동자가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에 설명을 덧붙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설명에는 ‘바로 달려가다’, ‘쏟살같이 이동하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의 표현이 추가되어 한국인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즉각 움직이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야근을 하는 장면에는 ‘야근을 즐기다’, ‘일을 많이 할수록’ 등의 표현이 사용되어 야근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대신 야근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내레이터는 ‘고되다’, ‘혹독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업무가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마음을 다잡다’, ‘그만둘 수 없다’, ‘몸을 다시 일으키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들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힘든 노동을 견딜 수 있는 데에는 ‘한국인의 도움’이 크다는 것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갔다.

〈표 8〉 근무 관련 내레이터의 발화

주제	어휘	문장
업무 (55%)	일하다	아빠가 주로 하는 일은 정확한 수치로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입니다. 수확철이 지난 요즘은 보관해 둔 당근을 세척하고 포장해 판매합니다. 아빠 사흐 씨는 기계를 돌리고 제품의 불량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대부분 야근하는 걸 싫어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야근을 즐긴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쏘살같이 이동하는 자릿 씨, 망설임 없이 기계를 손보는데요. 어장 크기만 무려 5헥타르, 축구장 일곱 개 크기의 어장 일을 두 사람이 다 하는 건데요. 아빠가 하는 데근 작업은 제품의 표면을 보호하고 부식에 잘 견디도록 크롬 피막을 입히고 다시 변색을 하고 탈수까지 무척 까다롭다는데요.
	힘들다	한국 바다 위는 겪어 보지 못한 혹독한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이다 보니 중간 중간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버티다	하지만 이 고된 일을 견뎌 내야 합니다. 매번 마음을 다잡고 독하게 버텨 봅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아빠는 힘든 몸을 다시 일으켜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는 뱃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실수하다	그런데 그때 기계가 감아져 있던 스테인리스가 풀어져 버립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발생한 일. 이번엔 파이프 생산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이프가 생산 라인을 벗어나 땅에 떨어져 휘어진 상황.
평가 (25%)	칭찬하다	트랙터 운전은 기본, 아빠는 못 하는 게 없는 만능 일꾼인데요.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모든 일에 능숙한 베테랑 직원이 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10년째 사장님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모범 직원이라네요. 부품을 접는 위험한 일도 척척, 한국 직원과의 소통도 막힘이 없습니다. 호랑이 사장님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당신을 능력자로 인정합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 한 번 찌푸린 적 없다는 아빠, 그야말로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포장부터 운송까지 못 하는 일이 없어서 동료들 사이에서 아빠는 최고의 직원으로 손꼽힌다고 하네요.
동료 (15%)	도와주다	다행히 상사의 도움으로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데요. 챙겨 줄 가족이 없는 스리랑카 직원들을 위한 작은 약국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 씨와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고단한 생활이지만 살뜰히 챙겨 주는 선장님의 따뜻함에 기운이 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빠는 외로움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빠를 위로해 주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동료들 정말 든든합니다.
건강 (5%)	아프다	일이 끝나고 나서야 여기저기 성치 않았던 몸이 아파 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셔 오는 탓에 파스부터 찾는데요.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이주노동자는 작업 현장에서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한국인 동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설명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에피소드에는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휴게 공간을 만들고 상비약을 비치해 두는 장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 찾아가 각종 물품을 챙겨 주는 장면, 이주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용 계약을 해 주는 장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이주노동자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는 장면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내레이터가 이주노동자의 업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평가’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능력자’, ‘만능 일꾼’, ‘모범 직원’, ‘최고의 직원’, ‘베테랑 직원’, ‘끊임 없는 노력’, ‘성실의 아이콘’, ‘사장님의 오른팔’, ‘막힘이 없다’, ‘무한 신뢰를 받다’, ‘못 하는 일이 없다’, ‘모든 일에 능숙하다’ 등으로 칭찬 일색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매우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업무, 동료, 건강이라는 세 가지 주제는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내레이터의 발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이주노동자와 내레이터가 업무나 동료를 발화의 주제로 삼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생활 관련 내레이터의 발화

내레이터가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발화한 내용은 한국 문화, 친구, 숙소, 경제적 상황을 주제로 한 발화로 세분화되며 각 발화는 전체의 54%, 19%, 14%,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의 발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경제적 문제가 여기에서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내레이터의 발화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는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관련된 내레이터의 발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생활 관련 내레이터의 발화

주제	어휘	문장
한국 문화 (54%)	좋아하다	동생 쓰영이 좋아한다는 한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래시장 나들이를 즐기는 아빠.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빠는 김밥 마니아로 소문이 파다하대요. 태권도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남자라며 그 매력에 빠졌대네요.
	적응하다	이제는 못 먹는 한국 음식이 없죠. 한국 생활 10년, 경상도 사나이 다 됐네. 음식만큼이나 한국 생활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서투르도 입맛만큼은 토종 한국인이지요. 남편은 태권도, 아내는 김밥, 정말 한국 사람 다 됐습니다. 폭 익은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라고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예의 차리는 걸 보니 석잔느 씨,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먹을 줄 아시네, 아주 그냥 씹씹씹 국물에 비벼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친구 (19%)	함께하다	낮선 땅 한국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챙겨 주는 동료들. 밤이 되면 두 사람이 같이 하는 유일한 취미가 있다네요. 말이 통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겠죠. 한국에서 만난 네팔 친구들, 고향과 가족을 떠난온 같은 처지의 사람들 이라 더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었죠.
숙소 (14%)	편안하다	아빠의 안식처는 바로 이곳인데요. 아마 이 집이 내 집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겠죠?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이 아늑한 공간이 아빠가 생활하는 곳이죠.
경제 상황 (13%)	돈이 없다	가격표를 보던 아빠의 손길이 잠시 주춧습니다. 마음에 들지만 가격 때문에 결국 내려놓고 맙니다. 한 달 생활비 20만 원에서 가족 선물까지 사려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벌써 몇 달째 눈도장만 찍어 둔 가방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아빠의 발걸음 이 무겁습니다.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내레이터가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발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어

휘는 ‘좋아하다’와 ‘적응하다’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발화가 ‘좋아하다’로 대표되는 데에 그쳤다면 내레이터의 발화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는 주로 ‘토종 한국인’, ‘먹을 줄 알다’, ‘한국 사람 다 되다’, ‘못 먹는 한국 음식이 없다’, ‘폭 익은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똑딱’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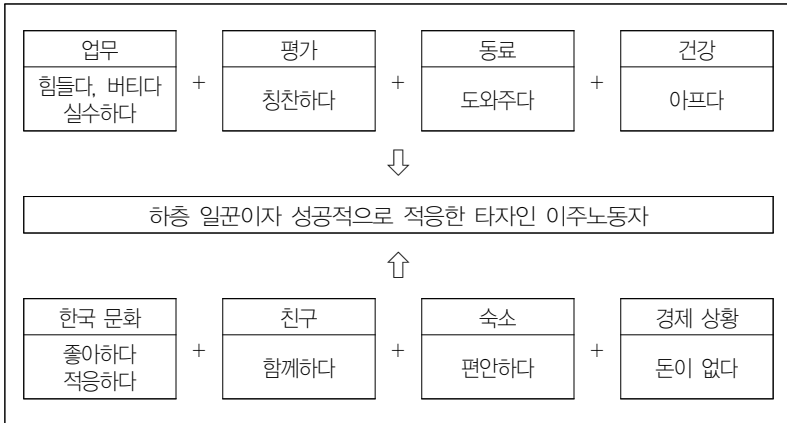
친구를 주제로 한 발화에 ‘함께하다’로 대표되는 어휘들이 많이 사용된 점이나 경제적 상황을 주제로 한 발화에 ‘돈이 없다’는 언급이 주를 이룬 점은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다르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추가된 점은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에피소드에는 같은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숙소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매번 나왔으나 이들이 숙소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은 단 한 차례도 소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숙소를 ‘안식처’, ‘아늑한 공간’ 등으로 표현하며 이곳이 ‘편안한’ 공간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3) 내레이터의 발화에서 생성된 담론

내레이터가 이주노동자의 근무 및 생활과 관련하여 발화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각 주제에서 과어휘화된 텍스트들은 <그림 4>와 같이 이주노동자를 ‘하층 일꾼이자 성공적으로 적응한 타자’로 규정하는 담론으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내레이터의 발화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평가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데 이러한 관리자의 시선이 반복적으로 차용됨으로써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관계가 사용자와 사용되는 자의 수직적인 관계로 평면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

들도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근무 현장에서 이들의 지위는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와 상관없이 매우 낮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림 4〉 내레이터의 발화에서 생성된 담론



출처: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방송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이주노동자는 업무에 능숙하고 한국인 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한다는 것이 이들에 대한 평가를 관통하는 내용인 만큼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속에서 이들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을 가진 동료들과 편안한 숙소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재현됨으로써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내레이터가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이주노동자를 두고 ‘토종 한국인’, ‘한국 사람 다 되다’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데에는 성공적으로 적응한 타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와 관련하여 직접 발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한국 문화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레이터의 발화는 문화적으로 동화된 이주

노동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적절하다는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매체의 틀 짓기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주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다큐멘터리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발화와 내레이터의 발화를 비판적 담화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들의 발화에서 과어휘화 전략을 통해 생성된 담론을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발화 주제는 ‘업무, 건강, 동료, 경제적 상황, 한국 문화, 친구’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주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어휘는 ‘(일이) 힘들다, (몸이) 아프다, (동료가) 도와주다, (돈을) 벌다, (돈이) 없다, (돈을) 보내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친구와) 함께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 과어휘화된 텍스트들은 이주노동자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담론으로 집약되었다. 이주노동자의 발화에는 힘든 업무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각종 지원을 받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었다.

한편 내레이터의 발화 주제는 ‘업무, 평가, 동료, 건강, 한국 문화, 친구, 숙소, 경제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주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어휘는 ‘(일이) 힘들다, (힘든 일을) 버티다, 실수하다, 칭찬하다,

(동료가) 도와주다, (몸이) 아프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다, (친구와) 함께하다, (숙소가) 편안하다, (돈이) 없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내레이터의 발화에서 과어휘화된 텍스트들은 이주노동자를 '하층 일꾼이자 성공적으로 적응한 타자'로 규정하는 담론으로 집약되었다. 내레이터의 발화에는 이주노동자의 발화에서 강조된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소략하게 다루어진 대신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인 동료나 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다.

상술한 분석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집단의 긍정적인 속성과 행위를 강조하고 '그들' 집단의 부정적인 속성과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Van Dijk 2016, 73) 이주노동자를 부정적 틀 안에서 사회적 약자이자 타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명혜(2008), 김경희(2009), 서경희 외(2019)는 한국식 오리엔탈리즘이 이러한 부정적 틀 짓기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서구 사회가 서양과 동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양을 재현하였듯이 한국 매체는 한국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식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구와 비서구의 위계 관계가 오늘날 한국인과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관계로 전이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체는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대중이 매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매체에 의해 구성된 현실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는 사실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수용자는 타자화된 대상이 매체에서 '제대로 된 말하기'와 '제대로 된 보

여주기'의 기회를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심훈 2012) 다층적인 모습 가운데 일부만이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비판적 담화 분석에 기초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다룬 각종 매체의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한다.

투 고 일: 2021년 06월 30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08월 18일

계 재 확 정 일: 2021년 08월 18일

참고문헌

- 강병석. 2019.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금상. 2013.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6(2): 39-81.
- 기준성·김민수·최민지. 2019. “결혼이민자 소재의 TV 프로그램 담화 속 차별적 요소 분석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3): 1-27.
- 김경림. 2018.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 통합의 모습 -EBS 아빠 찾아 삼만리 이주노동자 재현 분석-.” 『다문화와 인간』 7(12):

227-278.

- 김경희. 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뉴스초점 -이주민과 주변인물(한국인, 이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7-46.
- 김명혜. 2008. “<황금신부>를 통해 본 한국의 민족적 정경.” 『프로그램/텍스트』 17: 125-141.
- 김민욱. 2014. “자본축적으로서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사회과학연구』 32: 147-167.
- 김초희·김도연. 2018. “한국 다문화 TV 프로그램에서의 이주민·외국인 재현 -장르별 차이와 시기별 변화-.” 『한국언론학보』 62(3): 309-341.
- 김해연 외. 2016. 『담화분석』. 서울: 종합출판.
- 김혜련. 2014. “한국형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모형 연구: 재한 중국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희. 2009. “제17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회 언어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45: 220-254.
- 박수정. 2011.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182-203.
- 박진우. 2014. “이주노동자 탄압과 무권리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10년.” 『노동사회』 178: 74-81.
- 박효정. 2020. “EBS 다문화 고부열전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담화분석.” 『아시아문화연구』 52: 173-219.
- 서경희·김규현. 2019. “미디어 담화의 비판적 담화분석 -동남아 이주민 기사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6(3): 101-128.
- 서경희·정철원. 2020. “누가 갈등의 유발자인가? -‘다문화 고부열전’의 제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5): 1249-1264.
- 신유리. 2013. “한국 뉴스에서의 타자화: ‘이주민’ 관련 기사의 비판적 담화분석.” 『담화와 인지』 20(3): 169-194.
- 심훈. 2012.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다문화 방영물 서사 분석 -이야기

- 구도와 등장인물, 발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4): 184-209.
- 오수민·이하나·장기선·김영옥. 2012. “비판적 PR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담론경쟁 분석 -TV토론 프로그램 비판적 담론분석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0(2): 73-103.
- 이근옥·강국진. 2019. “미디어가 재현한 이주 노동자 가족: EBS1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텍스트 분석.” 『사회과학연구』 30(3): 25-50.
- 이기형·정준·구승우·전솔비·이승준·박민. 2014. “대중문화 텍스트로 진단 하는 ‘다문화주의’의 현황.” 『커뮤니케이션 이론』 10(3): 97-160.
- 이유인. 2018.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희·정예린·Sotthianan Jeeranan·양지현·강승혜. 2021. “태국인 근로자 대상 입국 후 단기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앱 설계를 위한 요구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8(1): 151-183.
- 이창호·정의철. 2010. “다문화사회 대중매체의 사회통합적 역할 탐구: 다문화정책 담당자 및 다문화방송 제작자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370-414.
- 장민정. 2014.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휴먼 다큐멘터리 EBS 다문화 고부 열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3): 67-86.
- 장혜경·우아영. 2011.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한 정신장애 담론 구별짓기의 완성.” 『사회복지연구』 42(1): 179-217.
- 전용일·백희정. 201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 다각화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23(4): 249-266.
- 지승우·노호래. 2021.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대응방안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36: 53-80.
-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한겨레신문과 조선

일보에 나타난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의 시계열적 분석.” 『언론학연구』 14(2): 205-241.

최윤선. 2014. 『비판적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최진훈. 2019.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 완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E-9 외국인근로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한국언론재단. 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London: Longman.

Teo, P. 2000. “Racism in the New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 Reporting in Two Australian Newspapers.” *Discourse & Society* 11(1): 7-49.

Van Dijk, T. A. 1985.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Disciplines of Discourse*. London: Academic Press.

Van Dijk, T. A. 1993.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4(2): 249-283.

Van Dijk, T. A. 2016. “Critical Discourse Studies: A Sociocognitive Approach.” R. Wodak and M. Meyer,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London: Sage.

Wodak, R. 1996. *Disorders of Discourse*. London: Longman.

Abstrac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r Representation of
Migrant Workers:
Focusing on a Korean TV Documentary

LEE, Jeong-hwa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presentation for migrant workers depicted in a Korean TV documentary series titled ‘Finding My Daddy’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formation of discourses by overlexicalization strategy based on transcribed materials for interviews with migrant workers and narrations in the program. Through the interviews, the program overemphasized migrant workers have been kept working to remit almost all the salary to their family suffering from financial hardship although being in ill health caused by physically demanding job and they have been supported by Korean supervisors. It led to a discourse considering migrant workers as objects of pity.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narrations, the program overstressed Korean supervisors have positively assessed migrant workers and the workers have been successfully assimilated into Korean culture. However as for the supervisors’ statements, they

lavished praises on the workers for obeying their commands. It produced a discourse regarding migrant workers as the lower class and acculturated other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is program categorized migrant workers as the social weak and the other in the negative framework.

Keywords: migrant worke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verlexicalization, media, framing

